

올 1300만명 돌파... '관광 여수' 활짝

'관광 여수' 원동력 3가지

- 1 즐길거리 많네**
해상케이블카·유람선 낭만 만끽
- 2 볼거리 널렸네**
버스커공연·아쿠아리움에 힐링
- 3 교통 편리하네**
KTX·차전용도로 인프라 구축

숫자로 본 관광명소 '넘버 3'

1 엑스포해양공원	304만명
2 오동도	269만명
3 해상케이블카	239만명

금오도 등 섬 관광 뜨며 잇단 발길 만성리~돌산대교 관광특구 박차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이후 4년 연속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고 있는 여수시가 1300만 관광객 시대를 활짝 열었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300만 관광객을 돌파했다. 이로써 여수시는 올해 목표인 1300만명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난해 대비 3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는 높은 성장세를 달성했다.

분기별 관광객 집계 결과를 보면 1분기 281만명, 2분기 363만명, 3분기 427만명을 기록했고 가장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지난 8월에는 221만명이 여수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포해양공원 304만명 찾아 '최고 인기' = 올해 가장 인기 관광지는 엑스포해양공원으로 304만명이 방문해 1위를 차지했으며, 269만명이 방문한 오동도가 2위, 여수해상케이블카가 239만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은 95만명으로 4위를, 오동도 코스 유람선은 5위로 43만명이 다녀갔다.

이번 집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지침에 따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 등록된 42개 관광지점에서 스마트 측정기로 공식 집계한 기록이다.

◇뛰어난 관광인프라...1300만 관광시대=여수

는 여수박람회 성공개최 이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나지고 특급호텔 등 관광인프라 등이 대폭 개선되면서 기존 관광자원과 신규 관광자원이 더해져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급부상했다.

박람회 이전만 해도 수도권에서 여수까지 5~6시간 정도 소요됐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와 KTX 개통으로 현재는 승용차 3시간 30분, KTX는 3시간으로 단축됐다.

또 국내 두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한화아쿠아리움이 들어선 박람회장을 선두로 지난해 12월 임시 개최한 국내최초 해상케이블카와 국내 최초 유럽형 천정 개방형 2층 도심투어버스, 시티투어와 레일바이크, 열기구, 여수밤바다 낭만버스커 공연 등 주요 관광상품의 인기몰이도 1300만 시대를 여는데 큰 힘이 됐다.

여수시는 지난 9월 열린 2015년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시상식에서 부산과 속초, 통영 등을 누르고 '해양관광 도시부문'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내기도 했다.

◇천혜의 섬관광 자원~4계절 체류형 관광지 도약=여수시는 지난해 10월 민선 6기 출범 100일을 맞아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여수'건설을 도사비전으로 선포하고, 4계절 체류형 명품 힐링 관광도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비령길로 유명한 금오도와 천혜의 비경 거문도·백도, 꽃섬 화하도, 공룡섬 사도 등 섬 관광이 뜨면서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부쩍 늘고



관광객들이 엑스포해양공원서 여수밤바다 낭만버스커 공연을 즐기고 있다.

있다. 여수시는 체류형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거문도·백도·금오도를 생태관광단지로, 일몰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자만과 화양지역을 대표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또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365개 섬 생태탐방로와 생태마를 조성, 복합관광시설 구축 등 '365 아일랜드 프로젝트' 사업도 한창이다.

◇만성리~박람회장~이순신광장~우두리 잇는 관광특구 구축=시는 일도신 일대에 해안 포장마차촌과 예술인 거리를 조성해 역사와 문화, 예술이 결합한 수준높은 관광콘텐츠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국가 지정 마리아나 항로로 공식 지정된 웅천지구에 해양레포츠 마리아나 등을 조성해 고급 해양레저관광 수요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여기에 만성리 검은 모래 해변과 세계박람회장, 이순신광장과 돌산대교 인근 우두리를 잇는 관광특구를 구축, 국제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도 추진중이다. 박람회장 인근 만성리 일대에는 고품격 레저·휴양단지 조성도 계획중이다.

내년에는 전국의 젊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기에 판매중인 '내일로'철도 상품을 여수~제주간 여객선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의 중에 있다. 또 이순신 일관 승전길, 컬러빌리지, 명품 하이킹 코스 등 새로운 즐길거리도 선보일 예정이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1300만 관광객 시대를 기점으로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성장을 목표로 관광객 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절치부심' 여수시 청렴도 최상위

여수시가 과거 '80여 횡령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청렴도 최상위 도시에 올랐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8.11점(10점 만점 기준)을 받아 전남 22개 시·군 중 1위를, 전국 157개 시·군 중 10위를 차지했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가 공사와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정·세정 등 14개 분야에 대한 민원인의 외부 평가와 조직 문화, 징계·처벌·인사·예산 등에 대한 공무원의 내부 평가를 통해 측정했다. 정책에 대한 고객 평가 설문조사와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신뢰도 저해 행위 등도 이번 평가에 반영됐다.

여수시는 지난 2012년 직원의 80억원 공금횡령 사건 등으로 청렴도가 전남도내 17위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여수시는 출범과 동시에 반부패 청렴 특별대책인 시민공무원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청렴도와 청렴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여수시는 또 전문 감사초청 청렴교육, 일과 시간 전 청렴방송, 사무실 입구 청렴 홍보판 설치, 청렴 도서 읽기, 각종 공문 생산 시 청렴문구 사용 등 청렴 생활화에 주력하고 있다.

공사발주, 인·허가, 규제단속 관련부서 등에서 시행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제와 수의계약 순번제 준수, 청렴 각서 교부, 전 직원 청렴 실천서약과 자기진단 등 시책을 통해 외부 청렴도 향상과 청렴 문화 정착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이번 청렴도 수치 상승은 2000여 공직자들이 그동안 적극적인 의지로 청렴 시책에 동참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전남도가 주관한 2015년도 시·군 부패방지 사책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한화케미칼 사랑나눔 계속...김장 1000포기 소외이웃에 전달

여수국가산단 내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에 따르면 지난 9일 여수시노인복지관에서 홀몸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을 위한 '2015 사랑나눔 김장대축제 행사'를 열었다.

이날 김장나눔 행사에는 한화케미칼 김평덕 공장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정성껏 담긴 1000포기의 김장김치를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올해로 20번째 계속되고 있는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의 김장나눔 축제는 소외된 이웃의 겨울철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김장나눔 행사는 매년 12월 중순께 여수시노인복지관에서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세계 경기 침체와 중동발 유행 급락 등 기업경영의 어려움속에도 임직원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나눔활동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김평덕 한화케미칼 여수 공장장은 "지역의 소외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임직원들이 지난 9일 여수시 노인복지관에서 김장나눔행사를 하고 있다.

묘도 마을기업, 전남창조혁신센터 입주기업 선정

여수시 묘도 마을기업이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으로 선정됐다. 여수 묘도는 여수국가산단과 포스코 광양제철 사이 중간지점에 있는 산단 인근 섬마을이다.

14일 전남창조센터에 따르면 창업자 발굴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실시한 제3차 입주기업 모집에서 여수 묘도 마을기업인 'MD이노베이션'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MD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입주 시설(최대 1년)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사업지원금(1000만원), 시제품 제작, 타기관 네트워크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국내외 마케팅 등 전남창조센터의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MD이노베이션은 폐목재 및 건조, 가축 분뇨와 폐각 등을 재활용한 친환경 고품질 퇴비를 제조·판매하는 친환경 기업이다.

이곳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묘도 지역발전협의회·어촌계장·청년회장 등 마을 주민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전형적인 참여형 마을기업이다.

MD이노베이션이 제조하는 친환경 고품질 퇴비는 작물의 영양흡수와 토양의 질을 높여 작물과 뿌리 성장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고추 시범생산에서 일반 비료를 사용한 고추보다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했고, 고추 내 칼슘(C++) 함유량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고추의 색

경도 선명하고 상품성도 높아졌으며, 재배지 내 잔류 농약 독성의 해독작용도 월등한 것으로 실험결과 나타났다.

전남창조센터는 마을기업 매출이 내년 5억8000만원, 2017년 21억원, 2018년 27억원의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7만2000톤의 폐목재, 2만9000톤의 축산분뇨 처리가 가능해져 환경 보호는 물론 연간 수천만원에 이르던 환경개선 비용도 절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센터 외에도 여수시의 여수산단기업, 순천대, 축산농가 등도 MD이노베이션을 전폭 지원하기로 해 지역 민·관·산·학 유기적 네트워크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GS그룹과 전라남도가 지난 6월 출범시킨 전남 여수에 위치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경.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 KTX 5분거리
- 시청 10분거리
- 도로 교통망 최고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선착순 동, 호수지정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편리한 교통편

문의 062-383-6400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온세계 아파트